

## 치위생 전공교육과 연계한 노인구강보건관련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효과 연구

윤영숙<sup>†</sup>  
동주대학 치위생과

### Effect of SERVICE-LEARNING related to Geriatric Oral Health according to Dental Hygiene Education

Young-Suk Yoon<sup>†</sup>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 Ju College, #15-1, Koijeong-Dong, Saha-Gu, Busan 604-715,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RVICE-LEARNING related to geriatric oral health according to dental hygiene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elf-efficacy and altruism & social responsibility was higher in post SERVICE-LEARNING than in pre SERVICE-LEARNING( $p < 0.05$ ). 2. Comparing pre-score of self-efficacy and altruism &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numbers of grade and service frequency,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3. Comparing the service frequency and satisfaction score after SERVICE-LEARNING,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4. Comparing service satisfaction score in terms numbers of grade and service frequency,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5. Comparing the service frequency and curriculum subject evaluation after SERVICE-LEARNING,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6. Comparing the curriculum subject evaluation score in terms numbers of grade and service frequency,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7. Result of post test(1 & 3grade, 2 & 3grade) for score difference of self-efficacy, altruism & social responsibility, service satisfaction, curriculum subject evalu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

**Key words** SERVICE-LEARNING, Dental hygiene education, Geriatric oral health

## 서 론

최근 들어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회복되고, 봉사에 대한 사회적 생산성 및 사회적 개방의 효용성이 발견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봉사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sup>1)</sup>.

봉사학습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과는 달리 교과과정과 봉사학습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양하도록 돕는 경험적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최근 대학교육에서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봉사학습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학 뿐 아니라 경영학, 정치학,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대학에서 봉사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봉사학습의 규모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는 2000년에 48개, 2002년에 114개, 2003년에는 107개의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sup>2)</sup>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전공교과목과 연계하는 봉사학습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에서 봉사학습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효과적인 학습방법개발과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시민적 책임감이나 지역사회 연대감은 감소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대학은 전문가 양성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인을 양성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공분야 중에서도 구강보건관련 과목은 이론과 실천이 효과적으로 접목되는 교과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교과목은 전체 교과과정에서 단지 몇 개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현장과의 실제적인 연계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교

<sup>†</sup>Corresponding author  
Tel: 051-200-3376  
Fax: 051-200-3483  
E-mail: igseong@yahoo.co.kr

육자들은 봉사학습을 보다 풍부하고 혁신적, 교육학적 접근의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봉사학습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대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과 학습효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는 인지적도덕적 발달<sup>3,4)</sup>, 자기효능감 향상<sup>5,6)</sup>, 사회적 책임감 고양<sup>3,7)</sup>, 참여적인 사회적 태도의 증진<sup>8)</sup>, 문제해결기술의 증진<sup>9)</sup>, 리더십 증진<sup>10)</sup>, 의사소통기술의 증진<sup>5)</sup>효과가 연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학습은 교과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학습효과<sup>11,12)</sup>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봉사학습의 다양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노인구강보건교육에서의 봉사학습의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봉사학습의 효과로 밝혀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책임, 참여적인 사회적 태도, 문제해결기술, 리더십, 의사소통기술, 학습효과 증진 등은 노인구강보건전문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하겠다.

한편, 국내연구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의 봉사학습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학생의 봉사학습과 관련해서는 외국대학의 사례를 고찰하고 봉사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sup>13)</sup> 대학생 봉사학습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연구한 것<sup>14)</sup>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연구는 사후평가와 만족도의 조사에 국한되어 적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봉사학습을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다양한 전공과목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전공과목 중 노인관련 예방치위생학 및 실습 교과과목에서 봉사학습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연계 봉사학습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실천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구강보건교육의 다양한 교과과목에서 대학생의 유능한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예비치과위생사를 배양하는 대학의 노인구강보건봉사기능 수행방안을 경험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학기에 걸쳐서 노인관련 예방치위생학 및 실습 전공과목에 봉사학습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봉사학습의 효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구강보건에서의 봉사학습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D대학 치위생과 1학년 교과과정의 12학기 즉 1년 과정의 전공수업인

노인구강관련 예방치위생학 이론 및 실습과목과 노인구강보건봉사과목에 SERVICE-LEARNING을 적용하였다. 수업은 동일한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고, 수강한 대학생은 1, 2학년 각각 43명, 3학년 45명으로 총 131명이 참여하였다.

### 2. 조사방법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노인관련 기관은 2002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던 자매정신요양원과 KNN 방송국 어르신 무료건강관리와 연계된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방문기관을 섭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본교의 시간표 편성원칙에 따라 예방치위생학 이론 및 실습 과목은 주 1회 이론 2시간 및 실습 1시간으로 총 3시간, 그리고 노인구강보건봉사활동 과목은 1시간 이상 봉사활동으로 주당 총 4시간 이상을 구강보건봉사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강의 계획서와 수업 첫 시간의 과목소개를 통하여 수업과 관련된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공지하였다.

수업의 증반부에서는 봉사활동이 진행되면서 매주 1회째 수업에서는 노인관련 구강문제에 대한 강연 및 연구보고서 발표가 있었으며, 매주 2회째 수업에서는 봉사경험에 대한 반성고찰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기관의 입소자들에게 잇솔질 교육 및 구강보건교육 등의 내용들을 봉사활동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의 세부내용과 평가에 대해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2회째 수업시간에 교수로부터 지도 받고 소집단 토의를 통해 반성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는 Sherer 등이 개발한 것으로서 한 등<sup>15)</sup>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인식과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5점 척도로 본래 3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개의 허위문항을 제외한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7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 측정은 Wrightman, Berkowitz와 Lutterman의 도덕성 척도를 한 등<sup>15)</sup>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이타성은 개인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심 등 9개 문항으로,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에 대한 헌신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등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2이었다.

사회봉사활동 만족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

봉사학습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SPSS/PC 12.0 package를 이용하였다.

첫째, 봉사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 봉사활동 만족도 점수, 교과목 평가 점수의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봉사학습효과 분석에서는 봉사학습 참여 후 봉사 횟수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 점수와 교과목의 평가점수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특성

치위생과 전체 봉사학습 참여자는 131명으로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이 중 1학년은 43명, 2학년은 43명, 3학년 45명이었다. 학생들은 본 연구의 수업에서 5회에서 40회 까지, 평균 9.6870회의 노인구강보건관련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모두 사전에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 2.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효과분석

#### 1) 자기효능감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전후에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사전 평균 2.68에서 사후 평균 3.57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Table 2. Self-efficacy difference of pre & post SERVICE-LEARNING**

	Pre	Post	t	p
	M ± SD	M ± SD		
Self-efficacy	2.68 ± 0.36	3.57 ± 0.37	-22.558	0.000*

\* $p < 0.05$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경험이 과업 계획과 수행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대인관계에서의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새로운 능력과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년, 봉사활동 횟수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 봉사활동 횟수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Scheffé 사후검정으로 실시한 결과 학년에 있어서 1학년과 3학년 간, 2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결과를 볼 때, 학년별로는 3학년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1학년, 2학년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학생들의 전공관련 학습량, 봉사경험이 3학년이 높은 결과는 이를 수업이나 봉사현장에서 강화하고 확인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비교적 더 높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전후에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teristics	Classification	N	%
Grade	1	43	32.8
	2	43	32.8
	3	45	34.4
Service frequency	5-10	78	59.5
	11-20	43	32.8
	21 over	10	7.7
	Total	131	100.0

**Table 3. Self-efficacy difference of grade & service frequency**

Classification	N	M	SD	F	p	Scheffé		
						1grade	2grade	3grade
Grade	1	43	2.58	24.285	0.000*		0.558	0.000*
	2	43	2.51			0.000*		
	3	45	2.94			0.26	0.000*	
Service frequency	5-10	78	2.74	2.275	0.107			
	11-20	43	2.60					
	21 over	10	2.60			0.36		

\* $p < 0.05$

**Table 4. Altru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score difference of pre & post SERVICE-LEARNING**

	Pre	Post	t	p
	M ± SD	M ± SD		
Altruism & Social responsibility	2.71 ± 0.40	3.44 ± 0.39	-15.229	0.000*

\* $p < 0.05$

**Table 5. Altru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pre-score difference of grade & Service frequency**

Classification		N	M	SD	F	p	Scheffé		
							1grade	2grade	3grade
Grade	1	43	2.50	0.27	22.139	0.000*	0.159	0.000*	0.000*
	2	43	2.64	0.45					
	3	45	2.98	0.28					
Service frequency	5-10	78	2.74	0.40	0.486	0.616			
	11-20	43	2.69	0.38					
	21 over	10	2.62	0.44					

\*p < 0.05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사회적 책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은 사전평균 2.71에서 사후평균 3.44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 < 0.05).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은 이타적인 생각의 실천도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결과는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년, 봉사활동 횟수에 따른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년에 따라 학생 개인의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봉사활동 횟수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있어서 1학년과 3학년 간, 2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결과를 볼 때, 학년별로는 3학년의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2학년, 1학년 학생 순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학생들의 전공관련 학습량, 봉사경험은 학년이 높을수록 많은 결과는 이를 수업이나 봉사현장에서 강화하고 확인함으로써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이 비교적 더 높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봉사활동효과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후의 봉사활동 횟수와 봉사활동 만족도의 차이에 있어 봉사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봉사활동 만족도 점수가 평균 2.86점으로 봉사활동 만족도 및 문제해결능력의 변화 등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p < 0.05, Table 6).

학생들의 학년, 봉사활동 횟수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년에 따라 봉사활동 간에 차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봉사활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있어서 1학년과 3학년 간, 2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Table 6. Difference of service frequency and satisfaction score after Service-Learning**

	M ± SD	t	p
Service frequency	9.68 ± 5.94	13.044	0.000*
Satisfaction score	2.86 ± 0.42		

\*p < 0.05

**Table 8. Difference of service frequency and curriculum subject evaluation after Service-Learning**

	M ± SD	t	p
Service frequency	9.68 ± 5.94	12.549	0.000*
Curriculum subject evaluation	3.11 ± 0.57		

\*p < 0.05

**Table 7. Service satisfaction score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and service frequency**

Classification		N	M	SD	F	p	Scheffé		
							1grade	2grade	3grade
Grade	1	43	2.77	0.40	14.537	0.000*	0.561	0.001*	0.000*
	2	43	2.68	0.34					
	3	45	3.11	0.40					
Service frequency	5-10	78	2.88	0.44	0.172	0.842			
	11-20	43	2.84	0.36					
	21 over	10	2.82	0.52					

\*p < 0.05

Table 9. Curriculum subject evaluation score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and service frequency

Classification		N	M	SD	F	p	Scheffé		
							1grade	2grade	3grade
Grade	1	43	3.01	0.39	9.170	0.000*		0.711	0.007*
	2	43	2.91	0.36				0.000*	
	3	45	3.38	0.76					
Service frequency	5-10	78	3.09	0.41	0.077	0.926			
	11-20	43	3.14	0.81					
	21 over	10	3.10	0.51					

\*p &lt; 0.05

나타났다(p < 0.05).

위의 결과를 볼 때, 학년별로는 3학년의 봉사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1학년, 2학년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학생들의 전공관련 학습량, 봉사경험이 3학년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이를 수업이나 봉사현장에서 강화하고 확인함으로써 봉사활동 점수가 비교적 더 높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교과목 평가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후의 봉사활동 횟수와 교과목 평가점수의 차이는 봉사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교과목 평가점수 평균 3.11점으로 잇솔질교육 등의 교과목의 평가점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p < 0.05, Table 8).

학생들의 학년, 봉사활동 횟수에 따른 교과목 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학년에 따라 교과목 평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 교과목 평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교과목 평가점수의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있어서 1학년과 3학년 간, 2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년별로는 3학년의 교과목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위의 결과는 전공학생들의 전공 관련 학습량, 봉사경험이 3학년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이를 수업이나 봉사현장에서 강화하고 확인함으로써 교과목 평가점수가 비교적 더 높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 찰

봉사학습은 자원봉사를 교과과정에 통합하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학생들의 참여와 반성적 고찰(reflection)로부터 얻어진 활동이다. Bringle과 Hatcher<sup>10)</sup>는

봉사학습을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정의하면서 봉사학습에는 전공을 폭넓고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시민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반성 고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National Society for Experimental Education에서는 봉사학습은 학생이 의도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주의 깊게 모니터된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이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반성 고찰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sup>17)</sup>.

이러한 봉사학습의 형태는 봉사와 학습의 관계에 따라 "service-LEARNING", "SERVICE-learning", "service learning", "SERVICE-LEARNING"의 네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service learning"은 봉사와 학습을 완전히 다른 개체로 보는 유형으로서 엄밀하게는 봉사학습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교실에서의 학습과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먼저, "service-LEARNING"은 교실에서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의나 독서, 토의 등의 전통적인 교수기법을 통해 전달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SERVICE-learning"은 봉사활동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학습한 것을 반영해 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SERVICE-LEARNING"은 봉사활동과 수업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서 한<sup>15)</sup>은 이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봉사학습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SERVICE-learning", "service-LEARNING"의 형태가 많아 기존의 사회봉사형식이나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Waterman<sup>18)</sup>은 봉사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이 얻은 이득을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봉사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첫째, 전통적 교과과정의 학습을 강화하고, 둘째,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셋째, 시민적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넷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Hesser<sup>19)</sup>는 11개 대학에서 16개 형태의 봉사학습을 운영하는 48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포커스집단 연구에서 봉사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문제해결기술, 봉사에 대한 헌신 등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고, 83%는 봉사학습이 전통적인 교과과정과 비교해서 학습의 질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Tucker와 McCarthy<sup>5)</sup>는 경영학 전공과 연계한 봉사학습의 적용연구에서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으로, 성취경험, 모델링, 사회적 신념, 생리적 상태가 있는데 봉사학습과 관련해서는 성취의 경험과 모델링의 요소가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봉사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이론, 지식, 기술을 적용해보면서 성취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동료 모델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봉사학습 수행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지하였다.

Eyler 등<sup>20)</sup>은 봉사학습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시민의식 척도에 있어서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Myers-Lipton<sup>21)</sup>은 사회적, 개인적 책임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Kendrick<sup>22)</sup>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신념과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사회적 책임감, 개인적 효능감, 학습주제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봉사경험과 학습의 반성고찰은 학생의 개인적 성장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봉사학습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전공에 적용하였을 때 대체로 전통적인 형식인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우수하다는 것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이타성,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노인구강보건전공교육과 봉사학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노인구강보건교육과 봉사학습의 특성과 방향성을 살펴보면,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구강보건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노인과 구강보건문제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노인구강보건전공연계 봉사학습에서는 지역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 요 약

전공봉사학습을 치위생 전공교과과목인 예방치위생학 및 실습 수업과 노인구강보건봉사활동 I, II를 D대학 치

위생과 학생들 1, 2, 3학년 총 131명에게 2학기에 걸쳐 적용하여 그 경험적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감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아울러 자기효율성,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의 변화는 학년별로는 유의하였으며( $p < 0.05$ ), 봉사활동횟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이타심 및 사회적 책임의 차이가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본 결과 1학년과 3학년 간, 2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봉사학습 참여 후 예방치위생학 및 실습과 연계한 노인구강보건봉사학습에서 시행한 봉사활동과 교과목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평가결과 봉사학습 참여 후의 봉사활동 횟수와 봉사활동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또한 봉사학습 참여 후의 봉사활동 횟수와 교과목 평가점수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위생전공교육에 봉사학습을 적용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학습이 보다 다양한 교과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차기연구에서는 기존의 강의중심의 수업과 봉사학습을 적용한 수업간의 비교연구, 과목에 따라 다양한 봉사학습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봉사학습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Lee HW: Elderly welfare-theory and practice. YooPoong, Seoul, pp.22-25, 2003.
2. The Korean Society Service Association: Service-learning enhances and college society service support. Society Service Professor Workshop, 2003.
3. Boss JA: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work on the moral development of college ethics students. J Moral Education 23(2): 183-198, 1994.
4. Giles DE, Eyler J: The impact of a college community service laboratory on student's personal, social and cognitive outcomes. J Adolescence 17(4): 327-339, 1994.
5. Tucker ML, McCarthy AM: Presentation self-efficacy: increasing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service-learning.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3(1): 222-225, 2001.
6. Williams NR, King M, Koob JJ: Social work students go to camp. Anker Publishing Company, Bolton, pp.365-377, 2002.
7. Kolenko A, Porter G, Wheatly W, Colby M: A critique of service learning projects in management education: pedagogical foundations, barriers, and guidelines. J Business Ethics 15: 133-142, 1996.
8. Markus GB, Howard PF, King DC: Integrating community service and classroom instruction enhances learning. Michigan J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5: 32-47, 1993.
9. Zlotkowski E: Successful service-learning programs. Anker Publishing Company, Bolton, pp.202-245, 1998.
10. Friedman SD: Community involvement projects in wharton's

- MBA curriculum. *J Business Ethics* 15: 95-101, 1996.
11. McCluskey-Fawdett K, Green P: Using community service to development psychology. *Teaching of Psychology* 19(3): 150-153, 1992.
  12. Sugar J, Livosky M: Enriching child psychology courses with a preschool journal option. *Teaching of Psychology* 15(2): 93-95, 1988.
  13. Kang MH: A study of service-learning related to society service and a major field. *J Ducksung Women University* 38(1): 20-28, 1997.
  14. Kim TW, Kim HR: A case study of undergraduate service-learning. *The Korean Social Welfare Association* 47(1): 148-177, 2001.
  15. Han IY, Park IY, Park HW, Kim JH: The effect of service-learning related to a major field study: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Korean Social Welfare Association* 57(3): 251-276, 2005.
  16. Bringle RG, Hatcher JA: Implementing servic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he Cooperative Educational Association* 67: 221-223, 1996.
  17. Furco A: Service learning: A balanced approach to experimental education in expanding boundaries: service and learning. *The Cooperative Educational Association* 67: 221-223, 1996.
  18. Weigert KM: Academic service-learning: its meaning and relevance in academic service-learning: A pedagogy of acting and reflec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pp.3-10, 2005.
  19. Hesser G: Faculty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outcomes attributed to service-learning and evidence of changes in faculty attitudes about experiential education. *Michigan J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2: 33-42, 1995.
  20. Eyley J, Giles DE, Braxton J: The impact of service-learning on college students. *Michigan J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4: 57-76, 1997.
  21. Myers-lipton SJ: Effect of comprehensive service-learn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level of modern racism. *Michigan J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3: 44-54, 1998.
  22. Kendrick JR: Outcomes of service-learning in introduction to sociology course. *Michigan J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3: 72-81, 1996.

(Received March 6, 2008; Accepted May 29, 2008)

